

이성과 관용 정신: 볼테르의 『관용론』 고찰

이 동 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 서 론

볼테르의 가장 중요한 면모, 가장 본질적인 면모, 또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모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어쩌면 부질없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사상가, 철학자, 역사가, 문인, 투사 등 이 18세기 유럽 대표적 지성인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역할 중 어느 것 하나를 제외하고서도 계몽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볼테르를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역사적 거인의 다양한 발자취를 대상으로 한 경중의 언급은 관심의 분야나 연구의 관점에 따른 개별적인 지적이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볼테르의 몇몇 연구자들에게서 볼테르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칼라스 사건 l'Affaire Calas에서의 볼테르의 활약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이 작은 고찰은 칼라스 사건을 둘러싼 투쟁 과정에서 나온 책자 『관용론 *Traité sur la tolérance*』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논의의 발단을 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주 제 어: 볼테르, 칼라스 사건, 관용, 이성, 계몽, 역사
Voltaire, L' Affaire Calas, tolérance, raison, Lumières, histoire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볼테르의 전기인 『그의 시대의 볼테르 *Voltaire en son temps*』의 저자로서 현대의 중요한 볼테르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르네 포모 René Pomeau는 칼라스 사건과 『관용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있다.

L'affaire Calas révèle le meilleur Voltaire, un homme grand par sa passion de la justice, par sa générosité au service d'un idéal humain. Il s'était affirmé tel par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qu'il avait publié pendant le procès, afin d'en désigner le véritable enjeu, c'est-à-dire l'établissement en France d'un régime de tolérance religieuse.

칼라스 사건은 최상의 볼테르를, 정의에 대한 그의 정열과 인류의 이상을 위한 그의 관대성에 의해 위대한 모습의 인물을 드러내 보인다. 볼테르의 그러한 면모는 『관용론』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 책은 칼라스 소송의 진정한 목적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프랑스에 종교적 관용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송 동안에 그가 출판한 것이다.¹⁾

볼테르 탄생 3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 미셸 알프랭 Michel Halperin이란 사람의 강연은 본래 문학 연구자가 아닌 법률가의 견해여서 더욱 흥미로운데, 그는 아예 칼라스 사건을 볼테르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다.

L'essentiel de Voltaire, c'est l'affaire Calas. Et peut-être qu'en disant cela, je me donne finalement raison de penser qu'un avocat a parfois le droit de parler d'un homme de lettres. Voltaire était un immense écrivain mais ce qu'il a écrit n'a qu'une importance relative, sauf l'affaire Calas, c'est-à-dire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Voltaire a certainement contribué au mouvement des idées de son siècle, et dans une mesure importante, mais beaucoup de ses textes ne

1) René Pomeau : "Voltaire : Le combat pour la tolérance. Calas, Sirven, La Barre", in *Raison Présente*, N° 112, Nouvelles Editions Rationalistes, 1994, pp. 78-79.

mériteraient plus une lecture attentive aujourd'hui, si ce n'est pour le plaisir d'une très belle langue.

볼테르의 본질, 그것은 칼라스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변호사도 때때로 문인에 관해서 얘기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할 당위성을 마침내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볼테르는 거대한 작가이지만, 칼라스 사건, 다시 말해 『관용론』을 제외하면, 그가 쓴 것은 상대적인 중요성 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볼테르는 분명히 자기 세기의 사상적 움직임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많은 텍스트들은 오늘날 대단히 아름다운 언어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주의 깊은 독서의 가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²⁾

칼라스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자로부터 나온 다음의 고찰은 어느 면에서 앞선 두 견해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강조하여 부연하고 있는 느낌이다.

Aujourd'hui, la majorité de nos contemporains connaît Voltaire à cause de Calas. Voltaire, c'est avant tout 《homme aux Calas》. C'est même le cas de demander, avec Claude Lauriol : 《Que serait aujourd'hui la gloire de Voltaire s'il n'avait pas été "le défenseur de Calas" ?》 Aussi peut-on dire qu'à soixante-huit ans cet extraordinaire vieillard commence, dans sa retraite de Ferney, une nouvelle carrière, celle par laquelle son nom passera le plus complètement à la postérité. Elles sont désormais bien oubliées les poésies et les tragédies qui lui valurent l'Académie française et la réputation de grand homme de lettres. Quant aux oeuvres d'historien qui soutiennent son titre d'historiographe du roi, elles ne sont globalement plus lues que des universitaires ou des spécialistes. Mais la mémoire collective entretient pieusement le souvenir du défenseur de l'innocence condamnée, flétrie, avilie. Voltaire, c'est d'abord le justicier.

2) Michel Halperin : "Voltaire : La tolérance intolérante", in *La tolérance au risque de l'histoire, de Voltaire à nos jours*, Aléas, 1995, pp. 160-161.

오늘날 대다수의 우리 동시대인들은 칼라스 때문에 볼테르를 알고 있다. 볼테르는 무엇보다도 먼저 《칼라스의 인사》이다. 심지어 클로드 로리올과 더불어 《만약 볼테르가 칼라스의 옹호자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그의 영광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해봄직도 하다. 이 특별한 노인인 68세에 페르네의 그의 은신처에서 하나의 새로운 생애,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이 가장 완벽하게 후세에 전해질 하나의 생애를 시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그에게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의 지위와 위대한 문인의 명성을 가져다준 시와 비극 작품들은 이제 잊혀졌다. 국왕의 수사가(修史家)로서의 그의 직함을 떠받쳐 주는 역사적 저술들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대체로 대학인들이나 전문가들 밖에는 읽지 않는다. 그러나 처단 받고, 상처받고, 모욕당한 무고함을 옹호한 사람의 추억을 집단적 기억력은 경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볼테르는 우선 정의의 심판관이다.³⁾

이러한 견해는 물론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하겠지만 누구나 수용할만한 명백한 사실의 제시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이다. 최상의 볼테르의 모습, 또는 볼테르의 본질을 칼라스 사건에서가 아니라 『철학서한 *Lettres philosophiques*』이나 『루이 14세의 세기 *Le siècle de Louis XIV*』에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칼라스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썼던 『관용론』이 오늘날 볼테르의 시나 극작품보다 많이 읽히리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과연 그것이 콩트 작품 『칸디드 *Candide*』보다 많이 읽힐지는 의심스럽다. 순전한 문학적 관심에서 고려할 때는 『관용론』이 볼테르의 저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의 흐름을 계몽 운동의 측면에서 고찰할 경우에는 분명히 칼라스 사건은 볼테르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18세기 계몽 운동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만하다. 칼라스 사건에 의해 볼테르는 계몽주의의 전투적 성격을 극명하게 구현하며, 19세기의 에밀 줄라, 20세기의 사르트르로 이어져나갈 프랑스 지식

3) Ghislain Waterlot : *Voltaire, le procureur des Lumères*, Editions Michalon, 1996, pp. 9-10.

인의 치열한 현실 참여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칼라스 사건은 계몽의 투사로서의 볼테르의 생애의 대단원이며, 『관용론』은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정수가 담겨 있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볼테르의 생애와 계몽주의의 역사에서 칼라스 사건과 『관용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저작의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미 두 세기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대체로 기억이 희미해진 칼라스 사건의 전말과 『관용론』의 간행 경위를 먼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칼라스 사건과 『관용론』

아내와 여섯 자녀를 둔 60대의 가장으로서 자기 고장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던 툴루즈의 포목상인 장 칼라스 Jean Calas는 프로테스탄트였다. 그의 집에는 30년 동안이나 봉사해와서 거의 가족과도 같은 잔느 비기에르 Jeanne Viguière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교도였고, 또 그의 삼남 루이 칼라스 Louis Calas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부친은 그에게 여전히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 상황은 장 칼라스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비타협적인 완고한 신교도는 아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1761년 10월 13일 칼라스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주인 부부, 장남 마르크 앙투안 Marc-Antoine, 차남 피에르 Pierre, 하녀, 그리고 고베르 라베스 Gaubert Lavaysse라는 청년이 참석해 있었다. 라베스는 칼라스 가족의 친구인 변호사의 아들로서 곧 멀리 카리브해 연안으로 떠날 예정이어서 인사차 방문했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아 머물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19시 반 경 장남 마르크 앙투안이 말없이 방을 떠나 층계를 내려갔다. 28세의 그 청년은 침울하고 폐쇄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본래 변호사가 되는 것이 희망이었지만 신교도에게는 그 직업에의 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는 처지였다. 주인과 얘기를 나누며 남아 있던 라베스가 22시 경 떠나려 하자 피에르가 그를 배웅하기 위

해 함께 층계를 내려갔는데, 그들은 아래층 가게의 문짝에 목이 매어 있는 마르크 앙투안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가족이 달려 내려왔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피에르와 라베스는 의사를 찾으러 달려갔고 당국에도 신고를 했다. 23시 30분 경 툴루즈 시 행정관인 다비드 드 보드리그 David de Beaudrigue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마르크 앙투안의 시체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시체에는 상처나 싸움의 흔적 같은 것은 없었고, 목에 가벼운 줄린 자국만이 보였다.

모여든 구경꾼들이 이 죽음을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가족이 그를 살해한 것이라는 소리가 일었다. 마르크 앙투안도 그의 동생 하나처럼 신교를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가족이 그를 살해했다는 얘기였다. 이단에 대한 증오의 정서가 유달리 강했던 툴루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전날 개종자를 처단하기 위한 프로테스탄트들의 회합이 열린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라베스가 사형 집행인으로 선출되어서 살해를 돕기 위해 불러왔다는 식으로 소문은 확대되어갔다. 이 근거 없는 소문이 칼라스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시 행정관 다비드 드 보드리그는 다른 어떤 필요한 조치에 앞서 구경꾼들의 심문에 역점을 두었고, 그들의 진술에 따라 칼라스 가족을 체포했다.

자살을 범죄로 여겨 자살자의 시체는 제대로 매장하지 않고 치욕스럽게 취급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 칼라스 가족은 그런 치욕을 피하기 위해 첫 심문에서는 마르크 앙투안의 자살을 부인했으나, 두 번째 심문에서는 그가 문에 목이 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음을 인정했다. 볼테르는 확신을 가지고 자살의 가정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사실 그의 죽음의 정황에는 얼마간 애매한 점이 있어 보였다. 이 죽음을 둘러싸고서 연구자들의 많은 설명이 존재하지만, 1981년에 소르본느 대학에서 발표된 장 오르소니 Jean Orsoni의 학위 논문 『볼테르 이전의 칼라스 사건 *L’Affaire Calas avant Voltaire*』이 가장 종합적인 연구여서, 르네 포모 같은 권위 있는 연구자도 그 논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은 대체로 이 논문에 의거해서 칼라스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에 의해 마르크 앙투안이 살해됐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그런

개연성 또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법 당국이 가족 범죄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 해 11월 8일 툴루즈의 카르멜회 수도사들은 마르크 앙투안을 마치 이교를 부인한 카톨릭의 거룩한 순교자라도 되는 양 장중하게 장례 지냈다.

심문이 되풀이되었지만 장 칼라스는 장남의 교살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논고에서 칼라스의 가족을 교수형에 처하고, 라베스는 갠리선으로 보내고, 하녀 잔느 비기에르는 5년간 병원에 감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논의를 거듭한 툴루즈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주저하고 의견이 둘로 갈렸는데, 그들은 우선 가장의 경우만 판결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8대 5의 표결로 장 칼라스의 사형 언도를 내렸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거열형(車裂刑) 언도였다. 사형 판결에는 두 표가 많은 다수결이 필요했는데, 한 명의 판사가 마지막에 의견을 바꾸어 가까스로 필요한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 장 칼라스의 사형은 판결 다음날인 1762년 3월 10일에 집행되었다. 그의 사형 선고 편에 선 판사들은 이 허약한 노인이 막상 처형의 극단적 고통에 직면하면 자신과 공모자들의 죄를 자백하리라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단말마의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용감하게 죽어갔다.

기대하던 자백을 얻어내지 못해 당황한 고등법원 판사들은 다른 피고들을 처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들 피에르에게만 추방령을 내리고 다른 피고들은 석방했다. <장 칼라스의 죽음의 개관 Histoire abrégée de la mort de Jean Calas>이라는 제목의 『관용론』 제1장에서 볼테르는 이 판결의 모순을 잘 지적하고 있다. 60대의 노인이 혼자 힘으로 건장한 청년인 아들의 목을 졸라 매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가 그런 일을 하려면 저녁 내내 함께 있었던 가족과 라베스의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석방된 사람들은 공범의 혐의가 벗겨진 셈이며, 추방된 피에르는 만약 공범이라면 아버지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만약 무죄라면 추방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볼테르는 이러한 모순의 지적과 아울러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던 두 딸이 수녀원에 유배 당하고, 미망인의 재산은 몰수되었다는 슬픈 얘기도 전하고 있다. 툴루즈의 한 평화로운 가정은 이렇게 비극적인 파탄을 맞은 것이다.

이 사건과 볼테르의 관계는 다시 르네 포모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Le procès Calas était terminé. Il eût pu, le temps passant, sombrer dans l'oubli, sans que l'injustice soit jamais réparée, sans que soit remise en cause une législation inique, sans que soit dénoncée l'intolérance. Mais le 22 mars 1762, Voltaire, à Ferney, apprend ce qui s'est passé à Toulouse. Par lui — par lui seul — le procès Calas va devenir l'affaire Calas, une de ces affaires qui marquent la conscience des hommes.

칼라스 소송은 종료되었다. 그 소송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불의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이 문제시되지 않고, 불관용이 고발되지 않은 채로 망각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1762년 3월 22일, 페르네에서, 볼테르는 툴루즈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된다. 그에 의해서,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의해서, 칼라스 소송은 칼라스 사건, 사람들의 양심에 각인된 그런 사건들 중의 하나로 변하게 될 것이다.⁴⁾

맨 처음 볼테르에게 장 칼라스의 불행을 알린 사람은 마르세유의 상인 도미니크 오디베르 Dominique Audibert였다. 처음에는 칼라스의 무죄를 믿지 않았던 볼테르가 의견을 바꾸는 데는 그 불행한 가정의 막내아들 도나 칼라스 Donat Calas를 만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나는 사건 당시 14살의 소년으로서 도제 생활을 위해 집을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처형 후에는 칼뱅 교도들의 중심지인 주네브로 피신해 있었다. 이 순진한 소년의 모습은 볼테르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의 불행은 볼테르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았다.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본 볼테르는 마침내 칼라스 가족의 결백을 확신하게 되었고, 4월에 들어서서는 이 사건을 자신이 떠맡기로 결심하였다.

칼라스 가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는 3년에 걸친 볼테르의 끈질긴 투쟁이 필요했다.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움직이는 일이 중요했다.

4) René Pomeau : *op. cit.*, p. 76.

그 일을 위해서는 칼라스 부인과 두 아들인 피에르와 도나의 글이 필요했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효과적인 형태로 호소하는 글을 쓸 능력이 없었다.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또 그것을 모아 『칼라스 가 남자들의 죽음과 툴루즈에서 내려진 판결에 관련된 원본 서류들 *Pièces originales concernant la mort des sieurs Calas et le jugement rendu à Toulouse*』이란 제목의 팜플렛으로 만들어 뿌린 것이 볼테르였다.

동시에 볼테르는 페르네의 은신처로부터 파리는 물론 유럽의 각지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정력적인 싸움을 이어갔다. 퐁파두르 Pompadour 부인을 끌어들여서 그녀를 통해 루이 15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주요 대신들과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들을 계속적으로 공략했다. 동시에 그는 유럽 전역에 걸쳐 칼라스 가족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서 스웨덴 왕과 프리시아 왕 등 주요 군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18세기에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나 파기 제도가 없었다. 볼테르는 고등법원보다 상급의 권위를 가진 국왕 참사회 le Conseil du roi를 움직여야 했는데, 마침내 1763년 3월 7일에는 칼라스 사건을 위한 참사회의 회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764년 6월 4일에는 참사회가 툴루즈의 판결을 파기했고, 칼라스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법정이 구성되어 1765년 3월 12일에는 이 법정이자 칼라스를 복권시키고, 다른 피고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볼테르의 오랜 투쟁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칼라스 사건은 막을 내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관용론』은 칼라스 사건을 위한 볼테르의 투쟁 과정에서 투쟁의 수단으로 출현한 저작이다. 볼테르의 서한에서 이 저작에 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그가 칼라스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한지 몇 달 후인 1762년 12월이다. 이 무렵 그는 친구인 다밀라빌 Damilaville과 다르장탈 d'Argental에게 보내는 각각의 편지에서 저술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자료를 모아 가는 과정에서 볼테르는 프랑스의 신교도들의 상황과 칼라스 사건이 일어난 고장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주도록 친구들에게 부탁한다. 1763년 1월 2일에는 주네브의 젊은 목사로서 『관용론』 집필에 소중한 협력자 역할을

한 폴 클로드 몰투 Paul-Claude Moutou에게 초고를 보내서 읽고 수정해 주도록 부탁하게 된다.

볼테르는 철저한 전략가로서 저작의 목적과 현실적 효과를 계산하면서 집필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간다. 어느 것 하나 우연에 내맡김이 없이 논거를 조직적으로 배열하고, 용어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문장의 길이를 측정하여 쓰는 작업이었다. 독자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용 못지 않게 형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테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볼테르가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독자층은 칼라스 사건의 재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족과 권력층 인사들이었다. 일반 독자층에게 저작을 배포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였다. 이 점에 관해서 볼테르는 다밀라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

Il faut toujours commencer par faire éclairer le grand nombre par le petit. Mon avis est que si la cour s'effarouchait de ce livre, il faudrait alors le supprimer, et en réserver le débit pour un temps favorable.

다수를 계발시키는 것은 항상 소수에 의해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궁정이 이 책에 질겁하게 된다면, 이 책을 폐기하고, 그것의 배포를 유리한 시기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⁵⁾

볼테르가 마지막 교정을 보고 마침내 배포할 수 있는 상태로 책자가 꾸며진 것은 1763년 4월이었다. 그는 예정했던 대로 대신들, 풍파두르 후작부인, 참사회 회원들, 귀족 친구들 등 칼라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유력 인사들에게 우선 그 저작을 보내고, 대중적 배포는 후일의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익명을 고집했고, 많은 사람들이 볼테르가 저자임을 의심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관용론』의 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썼다. 『관용론』은 그렇게 정선된 엘리트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5) "Lettre à Damilaville de 4 mars 1764", Valérie van Crugten-André :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de Voltaire*, Champion, 1999, p. 92에서 재인용.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했고, 검열 당국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확산되어갔다. 그러나 이 저작은 칼라스 사건의 종결과 더불어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중엽의 한 특수 사건에서 발단된 작은 책자 『관용론』은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계몽주의의 명작으로 남게 된다.

3. 역사적 관점

『관용론』은 하나의 우연한 시대적 사건인 칼라스 사건을 위한 변론서인 동시에 특정한 상황을 넘어서서 관용이란 일반적 가치를 설파하는 보편적 성격의 저작이기도 하다. 볼테르에게는 칼라스 사건 자체가 한 가족의 재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통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하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광신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괴적 결과의 한 현격한 예로서 인류 전체의 운명과 관계되는 사건인 것이다. 볼테르는 『관용론』 집필 이전부터 피에르 칼라스의 입을 빌려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Je sens qu'il importe au genre humain qu'on soit instruit jusque dans les derniers détails de tout ce qu'a pu produire le fanatisme, cette peste exécrable du genre humain.

광신이라는 인류의 이 저주스러운 재앙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알려지는 것이 인류에게 중요하다고 나는 느낍니다.⁶⁾

볼테르는 처음부터 『관용론』을 일시적 효용성의 저작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었던 듯, 책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후대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6) *Déclaration de Pierre Calas*, in Voltaire : *Mélanges*, Pléiade, 1991, p. 552.

Le meurtre de Calas, commis dans Toulouse avec le glaive de la justice, le 9 mars 1762, est un des plus singuliers événements qui méritent l'attention de notre âge et de la postérité.

1762년 3월 9일 툴루즈에서 사법의 칼날로 자행된 칼라스 살해는 특이한 사건의 하나로서, 우리 시대와 후대의 주의를 끌만하다.⁷⁾

그리고 『관용론』 제25장의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관용에 대한 일반적 성찰이 저술을 이끌어온 원리였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Ce Dieu sait que nous n'avons été animés que d'un esprit de justice, de vérité, et de paix, quand nous avons écrit ce que nous pensons de la tolérance, à l'occasion de Jean Calas, que l'esprit d'intolérance a fait mourir.

불관용의 정신으로 인해 희생된 장 칼라스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가 관용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써오는 과정에서, 우리를 이끌어준 것은 오직 정의와 진리와 평화의 정신이었음을 하느님은 아실 것이다.⁸⁾

관용(tolérer)의 어원적 뜻은 본래 종교적인 것으로서 오류의 신앙을 가진 일부 사람들을 감내(supporter)한다는 의미이지만, 『관용론』에서는 그 단어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정치 사회적 함축을 지닌 포괄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다. 관용은 종교개혁의 세기인 16세기부터 널리 유포되어온 개념이며, 프랑스 계몽 철학의 공통적 관심사이기도 해서 볼테르만의 주제일 수는 없다. 상황의 소산으로서 시대의 특수성에 반응하는 전략적 저술인 만큼 『관용론』은 사상적 대답성에서는 오히려 앞선 선구자들인 존 로크 John Locke나 피에르 베일 Pierre Bayle의 이론적 저술에 못 미치는 점도 있어 보인다. 이 저작의 특성은 관용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볼테르의 방식에서 더 많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볼테르의 설득 방식은 그의 역사적 관점이다.

7) Voltaire :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 Pléiade, 1991, p. 563.

8) *Ibid.*, p. 644.

역사에 관한 볼테르의 관심은 대단히 폭넓은 것이어서 17세기와 18세기의 근세사는 물론 그리스, 로마, 유대의 역사 등 고대사 전반,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세계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역사적 성찰은 현재를 상대화시킴으로써 현상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을 가져다준다. 역사적 사실의 부단한 환기에 의해 볼테르가 겨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효과이다. 칼라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고 있는 『관용론』 제1장에서부터 볼테르는 대뜸 역사적 비교를 통하여 장 칼라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법 제도의 모순을 지적해낸다.

La faiblesse de notre raison et l'insuffisance de nos lois se font sentir tous les jours ; mais dans quelle occasion en découvre-t-on mieux la misère que quand la prépondérance d'une seule voix fait rouer un citoyen? Il fallait, dans Athènes, cinquante voix au delà de la moitié pour oser prononcer un jugement de mort. Qu'en résulte-t-il? Ce que nous savons très inutilement, que les Grecs étaient plus sages et plus humains que nous.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이성의 연약함과 우리 법률의 불충분함을 느낀다. 그러나 단 한 표의 우세로 한 시민이 거열형에 처해질 때보다도 그것의 참화가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아테네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 과반수 찬성에 50표가 더 필요했다. 그 사실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스인들이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인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⁹⁾

톨루즈시의 정직한 시민 장 칼라스는 고대 아테네에 비해 더 가혹하고 불합리한 사형 제도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 바로 앞에서 볼테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부모에 의한 자식 살해 같은 일반적으로 있기 힘든 사건에서는 확실한 증거에 입각한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 같은 보다 신중한 재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칼라스는 사법 제도의 피해자이기에 앞서 종교

9) *Ibid.*, pp. 567-68.

적 광신의 희생자였다.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카톨릭 교도들의 불신과 증오가 그를 자식 살해범으로 몰아갔던 만큼 칼라스 사건의 핵심에는 종교적 관용의 문제가 놓인다. 따라서 볼테르의 역사적 비교는 무엇보다도 종교에 역점이 두어져 있다. 『관용론』은 종교적으로 보다 관용적이었던 역사의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아테네의 경우가 두드러진 예이다.

Les Athéniens avaient un autel dédié aux dieux étrangers, aux dieux qu'ils ne pouvaient connaître. Y a-t-il une plus forte preuve non seulement d'indulgence pour toutes les nations, mais encore de respect pour leur cultes?

아테네인들은 이방의 신들,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신들에게도 제단을 헌납했다. 모든 민족에 대해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종교도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겠는가?¹⁰⁾

고대 로마인들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에 뒤지지 않는 종교적 관대성의 소유자들이었음을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Chez les anciens Romains, depuis Romulus jusqu'aux temps où les chrétiens disputèrent avec les prêtres de l'empire, vous ne voyez pas un seul homme persécuté pour ses sentiments. (...) Les Romains ne professaient pas tous les cultes, ils ne donnaient pas à tous la sanction publique ; mais ils les permirent tous.

로물루스 시대부터 기독교도들이 제국의 신관들과 논쟁을 벌이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로마인들에게서는 종교적 감정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을 단 하나도 볼 수 없다. (...) 로마인들이 모든 종교를 신봉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종교를 공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종교를 허용했다.¹¹⁾

10) *Ibid.*, p. 586.

11) *Ibid.*, pp. 586-87.

이처럼 종교 문제에 있어서 관대했던 로마인들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볼테르는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도 박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설과는 달리 해석한다. 초기 기독교도 박해는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이 잘못 알려진 것이며,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죄를 뒤집어씌워 기독교도들을 살해했다는 것도 종교적 불관용의 결과는 아니라고 볼테르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볼테르는 성 라우렌티우스 Laurentius, 성 폴리우토 Poliuoto 등 로마 시대 기독교 순교자들의 죽음은 대부분 그들의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신앙의 결과로 유발된 것이지 로마의 종교적 불관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순교자 열전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독교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Diocletianus 황제 치세의 잔인한 기독교 박해의 역사도 볼테르의 해석에 의하면 과장과 왜곡이 심한 이야기이다. 종교적 신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체제를 위협할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대체로 그런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볼테르는 보고 있다. 요컨대 로마인들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초기 기독교도들이 편협하고 광신적인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볼테르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서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미셸 알프랭 같은 사람은 그의 반유대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관용론』에는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볼테르는 유대인의 역사에서조차 종교적 관용의 흔적을 찾아낸다.

On ne trouve, dans toute l'histoire de ce peuple, aucun trait de générosité, de magnanimité, de bienfaisance ; mais il s'échappe toujours, dans le nuage de cette barbarie si longue et si affreuse, des rayons d'une tolérance universelle.

이 민족의 전 역사를 통하여 너그름이나 아량, 자비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것처럼 길고 끔찍스러웠던 야만의 구름 속에서도 보편적 관용의 빛줄기가 언제나 새어나온다.¹²⁾

12) *Ibid.*, p. 608.

유대 민족의 종교적 관용의 흔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볼테르는 구약성서를 길게 검토하고 있다. 폐쇄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조차 이처럼 관용성을 찾아냄으로써 볼테르는 상대적으로 기독교도들의 불관용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볼테르의 비교는 18세기로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중국과 일본 같은 동양의 종교적 관습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수회 선교사들을 추방한 청나라의 조치나 결국 쇠국 조치에 이르게 된 일본의 종교적 분쟁이 모두 선교사들 자신의 편협함의 결과이지 해당 국가의 잘못이 아님을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l est vrai que le grand empereur Young-tching, le plus sage et le plus magnanime peut-être qu'ait eu la Chine, a chassé les jésuites ; mais ce n'était pas parce qu'il était intolérant, c'était, au contraire, parce que les jésuites l'étaient.

아마도 중국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너그러운 황제였던 위대한 옹정제가 예수회 선교사들을 추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황제가 종교적 관용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회 선교사들이 그랬기 때문이다.¹³⁾

Les Japonais étaient les plus tolérants de tous les hommes : douze religions paisibles étaient établies dans leur empire; les jésuites vinrent faire la treizième, mais bientôt, n'en voulant pas souffrir d'autre, on sait ce qui résulta: une guerre civile, non moins affreuse que celle de la Ligue, désola ce pays.

일본인들은 가장 관용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제국에는 이미 12개의 평화로운 종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와 13번째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다른 종교를 용인하지 않으려 해서, 알다시피 머지않아 내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리그 전쟁 못지않게 끔찍했던 내전이 그

13) *Ibid.*, pp. 578-79.

나라를 황폐화시켰다.¹⁴⁾

볼테르의 해박한 역사적 검토를 통하여 드러나는 동서고금의 종교적 관용의 예들은 기독교도들이 저지른 많은 불관용의 사례들과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관용론』은 이교와 이단에 대한 기독교의 박해의 긴 목록을 보여주는 책이다. 역시 역사가의 날카로운 비판적 안목으로 볼테르는 기독교의 전 역사를 훑으면서 잔인한 박해의 사례들을 들춰낸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로 보이기도 한다.

On sait assez ce qu'il en a coûté depuis que les chrétiens disputent sur le dogme : le sang a coulé, soit sur les échafauds, soit dans les batailles, dès le IV^e siècle jusqu'à nos jours.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온 이후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4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처형대 위에서건, 전쟁터에서건, 많은 피가 흘렀다.¹⁵⁾

볼테르가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이었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관용론』에서는 기독교 비판이 종교 자체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구약성서의 면밀한 검토와 철학적 해석을 통하여 볼테르는 기독교가 본래 불관용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가 잔인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교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공연한 논쟁과 광신자들의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리라. 여론의 반향을 의식해야 하는 전략적 저술답게 이 책에서의 기독교 공격은 직설적이지 아니며, 공격의 어조 또한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박해에 대한 볼테르의 반응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계몽주의의 대표적 투사 볼테르가 박해에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한 연구

14) *Ibid.*, p. 579.

15) *Ibid.*, p. 572.

자는 이렇게 전해 주고 있다.

Pour Voltaire, la Saint-Barthélemy reste un traumatisme profond et le souvenir de ce crime contre l'humanité le hantera jusqu'à la fin de ses jours. La fièvre le saisit le jour anniversaire du célèbre carnage, les fantômes des victimes de l'intolérance religieuse viennent hanter ses nuits.

볼테르에게 성 바르텔레미 대학살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 있으며, 인간성에 반하는 이 범죄의 기억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유명한 살육이 행해진 날이 돌아오면 그는 열병에 사로잡혔고, 밤이면 종교적 불관용 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망령에 시달렸다.¹⁶⁾

불의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스스로 열병을 앓을 만큼 민감했던 볼테르에 의한 불관용의 고발, 그것이 『관용론』의 하나의 의미이다. 볼테르의 만년을 특징짓는 소위 <치욕스러운 것 l'Infâme>과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양상이 칼라스 사건이었다면, 『관용론』은 이 싸움의 효과적인 도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 책자에는 기독교의 광신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광신을 뜻하는 <치욕스러운 것>에 대한 비판과 공격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자는 <치욕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관용에 이르는 길의 모색 또한 보여주고 있다.

4. 관용과 이성

무엇이 편견과 광신을 넘어 관용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 답은 일목요연해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자비심 같은 감정, 또는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말한 바와 같은 타자의 고통을 보기 싫어하는 본능적 반응, 또는 도덕적 함양이나 온건한 풍습이 관용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

16) Valérie van Cruyten-André :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de Voltaire*, p. 109.

천적 지식인이었던 볼테르의 실용적 저술답게 『관용론』은 관용에 관한 체계적 이론서가 아니어서 논리적 해답이 자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볼테르는 초기 저서 『철학서한 *Lettres Philosophiques*』을 영국 퀘이커 교도들에 대한 경탄 어린 관찰로 시작하면서 그 교파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또 『관용론』 제 4장에서도 미국 퀘이커 교도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극찬하고 있어, 그들이 야말로 가장 관용적인 종교집단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특히 이성적이었다든지 또는 감성적으로 특별히 순치되어 있었다든지 등 그들을 관용적인 집단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개인적 차원이나 작은 규모의 집단 내지 지역적 차원에서 관용을 얘기하자면 다양한 원인과 처방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관용론』은 특수 사건에서 기인된 것이로되 보편성을 지향하는 저술이다. 당연히 관용의 모색 또한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방면에서의 논의와 해결책에 관한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관용론』에 제시된 인류 보편적인 관용에의 길, 그것은 이성에 의한 길이다. 계몽의 세기의 대표적 사상가답게 볼테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에서 관용의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그의 다른 저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용론』에서도 다시 한번 이성의 강력한 설교자로 드러난다.

볼테르의 필치 하에서 이성은 곧 광신의 반대항으로 나타난다. 칼라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관용론』 제1장에서부터 볼테르는 칼라스를 광신의 희생자로 제시하면서 광신과 이성을 다음과 같이 대조시킨다.

Et c'est de nos jours! et c'est dans un temps où la philosophie a fait tant de progrès! et c'est lorsque cent académies écrivent pour inspirer la douceur des moeurs! Il semble que le fanatisme, indigné depuis peu des succès de la raison, se débatte sous elle avec plus de rage.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일이라니! 철학이 그토록 많은 진보를 이루어내고, 수많은 아카데미가 풍속의 온화함을 고취하는 글을 쓰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최근에 이성의 성공에 분개한 광신이 이성의 밑에서

더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⁷⁾

곧 뒤이어 볼테르는 파리와 지방을 비교하여 파리가 상대적으로 이성적임을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칼라스는 이성이 뒤쳐져 있어서 광신이 맹위를 떨치는 툴루즈라는 지방적 풍토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La raison l'emporte à Paris sur le fanatisme, quelque grand qu'il puisse être, au lieu qu'en province le fanatisme l'emporte presque toujours sur la raison.

광신이 아무리 기승을 부릴 수 있다 해도, 파리에서는 이성이 광신을 능가한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거의 언제나 광신이 이성을 누른다.¹⁸⁾

18세기의 지적 풍토를 반영하듯 볼테르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성은 광신의 틀림없는 치료제이고, 우리를 관용으로 이끄는 무류(無謬)의 안내자로 제시되는 것이다. 『관용론』에는 볼테르의 이성에 대한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징적인 한 대목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Le grand moyen de diminuer le nombre des maniaques, s'il en reste, est d'abandonner cette maladie de l'esprit au régime de la raison, qui éclaire lentement, mais infailliblement, les hommes. Cette raison est douce, elle est humaine, elle inspire l'indulgence, elle étouffe la discorde, elle affermit la vertu, elle rend aimable l'obéissance aux lois, plus encore que la force ne les maintient.

편집광적 광신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묘책은 그 정신병을 이성의 요법에 맡기는 것이다. 이성은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을 계발시킨다. 이성은 온화하고, 인정이 있으며, 이

17) Voltaire : *Traité sur la tolérance*, p. 567.

18) *Ibid.*, p. 570.

성은 너그러움을 고취하고, 불화를 잠재우며, 이성은 덕성을 확고히 하고, 강제로 법을 유지시키기보다 법에 복종하는 것을 즐겁게 만든다.¹⁹⁾

이런 비전 하에서는 이성이 인간 사회의 모든 순기능의 근원이며, 사회적 완성도의 척도이기도 할 것이다. 볼테르는 기독교 세계에 비해 고대 세계가 더 관용적이었음을 줄곧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의 관점으로는 고대 세계가 더 이성적이고 사회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임이 분명하다. 이성의 절대적 신봉자였던 볼테르는 종교적 관용의 차이를 다신교와 일신교의 차이 같은 다른 요인에서가 아니라 오직 이성의 계발 정도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 같다.

이성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는 이러한 볼테르의 견해에서 우리는 그의 역사관의 일단을 볼 수도 있다. 고대 세계가 그 이후의 기독교 세계보다 우월했다는 얘기는 역사 발전이 필연적으로 일직선적 방향을 취하는 것은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볼테르의 역사관이 순환론적 입장에 더 가까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관용론』에 기술된 역사는 분명히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순환의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 작용하는 인간의 이성은 시대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여 나타날 뿐,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조명된다. 볼테르가 신뢰하는 이성은 인간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불변하는 구조로서의 이성인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기로 한다.

Il faut être attentif ici au fait que la découverte moderne de la raison ne signifie pas l'invention de quelque chose qui n'était pas et que les hommes auraient produit. Voltaire y insiste régulièrement: la raison est plus ancienne que les coutumes de la plus haute antiquité. Elle est de tous les temps. Mais les hommes l'ont recouverte de leur barbarie, ou plus exactement la raison est un germe immanent à l'humanité, universellement répandu, mais dont le développement et la croissance ont été empêchés. Il suffit maintenant de

19) *Ibid.*, pp. 581-82.

savoir répandre les Lumières et les hommes sauront user sainement de la raison et abolir les aberrations héritées du passé.

이성의 근대적 발견은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어떤 것을 발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성 가장 오랜 고대의 관습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라고 볼테르는 한결같이 강조한다. 이성은 모든 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야만성으로 그것을 가려왔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성은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인간성에 내재하는 싸이지만, 그것의 발전과 성장이 막혀왔다. 이제는 이성의 빛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건전하게 이성을 사용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오류를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이성의 역사적 찬가 *Eloge historique de la raison*』라는 좀 기이한 제목의 짤막한 콩트에서 볼테르가 우화적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오랫동안 억눌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이성이 18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족쇄를 풀고 비상을 시작하였다. 『관용론』에서도 볼테르는 자신의 세기인 계몽의 세기를 먼목이 일신된 시대, <눈부신 진보를 이룬 이성, 많은 양서들, 온화한 사회 풍속>²¹⁾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마침내 도래하게 된 이 빛나는 이성의 시대에 벌어진 칼라스 사건은 이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욕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성의 사도 볼테르는 분격하여 일어나 싸운 것이다. 이 역사적 투쟁의 효과적 도구로 안출된 『관용론』은 관용 정신을 고양하는 맥락의 귀착점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만난다.

20) Ghislain Waterlot : *op. cit.*, pp. 91-92.

21) Voltaire : *Traité sur la tolérance*, p. 575.

5. 결 론

칼라스 사건이 일어난 1762년 볼테르의 나이는 68세였다. 만 3년의 투쟁 끝에 마침내 칼라스의 복권을 얻어낸 1765년 페르네의 장로는 71세의 노인이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현저히 늘어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큼 체념하고 인생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노령에 이 18세기의 계몽사상가는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고, 찬란한 승리를 쟁취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 아니 프랑스라는 대국이 전체를 상대로 하여 전 유럽의 여론을 뒤흔들면서 혼자서 해낸 힘겨운 싸움이었고, 그만큼 값지고 빛나는 승리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정열적인 볼테르의 인간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불꽃같은 정열이 없이는 해낼 수 없는 투쟁이었다. 건조하고 냉랭한 이성의 세기를 대표하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옴푹한 눈의 깡마른 노인 볼테르의 이미지, 칼라스 사건은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고 부인한다. 볼테르가 제시하는 최종적 교훈이 이성이라면, 그것은 노투사(老鬪士)의 정열적 모습과는 모순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열적인 노인이 제시하는 것인 만큼 더욱더 설득력 있는 교훈인가?

칼라스 사건에서의 볼테르의 활약은 아마도 사르트르가 말한 지식인의 양가주망의 가장 선구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품이란 동시대에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에 『관용론』은 가장 잘 부합하는 저작일 것이다. 칼라스 사건의 성공적 종결을 가져왔으므로 『관용론』은 애초의 목적을 백퍼센트 달성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저작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관용론』은 18세기 당대와 더불어 생명이 다한 책이 아니다. 저자 자신의 의도 역시 구체적 사례를 넘어 보편성을 지향한 측면이 있으며, 또 우리는 아직도 관용의 호소가 여전히 강한 울림을 갖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 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당대의 여론의 반응을 우선 고려해야 했던 전략적 저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논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관용론』이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카톨릭 교회가 보기에는 볼테르가 불경한 자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정통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관용론』 또한 불경한 자가 쓴 독성(瀆聖)의 책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저작은 카톨릭의 불관용에 맞서 프로테스탄트를 옹호한 저작이니 프로테스탄트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현실적 투쟁의 목적으로 나온 『관용론』은 종교를 신앙의 관점에서보다는 주로 제도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종교 철학적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구교든 신교든 기독교 신앙인에게는 『관용론』이 전적으로 수용할만한 내용만 담고 있는 책은 아닌 것 같다. 다음의 지적은 종교적 신앙과 관용이 아예 비양립적이라는 생각까지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Un croyant ne pourrait être qu'intolérant, ou alors il serait incohérent. Quiconque ne serait pas fanatique ne croirait pas vraiment, et un croyant tolérant serait un homme résigné. La véritable tolérance serait l'apanage de l'agnostique, non du croyant.

신자는 불관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논리적 통일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광신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며, 관용적인 신자란 체념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관용은 신자가 아닌 불가지론자의 속성일 것이다.²²⁾

자기 종교의 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유일신교의 진실한 신자는 타종교의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교적으로 관용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견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나 교리 같은 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

22) Jérôme Cottin : “La tolérance voltairienne à la lumière de la conscience chrétienne”, in, *La tolérance au risque de l'histoire, de Voltaire à nos jours*, p. 155.

며,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이성과 관용 정신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볼테르는 『관용론』에서 불관용에 대한 처방으로 분명히 이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18세기 철학자의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에는 아무런 그늘도 끼어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칼라스 사건이 있었던 18세기 중엽 이후 2세기 반의 세월 동안 갖가지 역사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 것처럼 철저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성의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역사적 오류의 기억에 시달려야 하는 오늘날의 이성주의자들에게는 회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눈에는 <볼테르의 이성에 대한 믿음은 순진성이 없지 않은>²³⁾ 믿음으로 비칠 것이다. 계몽사상가의 아무 유보 없는 신념을 부러워해 보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성에 대한 신뢰보다 오히려 불신과 공격의 담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상이다.

볼테르의 계몽적 투쟁 이래 관용은 이제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앞서 인용한 제롬 코탱의 견해도 하나의 종교적 관점의 제시일 뿐 불관용을 옹호하는 주장은 아니었다. 자신과 다른 믿음, 다른 견해를 용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만큼 완고한 사람은 이제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진과 후퇴가 있기는 했겠지만, 칼라스 사건 이후 세계사가 분명히 관용의 증대를 향한 흐름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볼테르의 시대보다 현재의 인류가 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볼테르의 관용의 호소는 여전히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포함하여 인종, 이념, 계층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현대세계는 아직도 관용 정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상적 사회가 도래하지 않는 한 인간 사회는 영원히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관용 정신의 발현을 이성의 계발에 기대하는 논리 또한 반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인간의 이성을 트집 잡고 흠집 내려는 논의는 무성하지만, 관용 정신의 근거로서 이성 이상의 것을 제시하는 사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성을 무기로 하

23) Ghislain Waterlot : *op. cit.*, p. 76.

여 관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고취하는 볼테르의 『관용론』은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깊은 울림을 갖는 저작으로 남아 있다.

Bibliographie

Voltaire : *Traité sur la tolérance, L’Affaire Calas,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Pléiade, 1991

Voltaire : *Romans et contes*, Pléiade, 1990.

Adorno T. W. et Horkheimer M. : *La dialectique de la Raison*, Traduit de l’allemand par Eliane Kaufholz, Gallimard, 1974.

Bessire F. et Menant S. : *Lectures d’une oeuvre, Traité sur la tolérance de Voltaire*, Editions du temps, 2000.

Cornaton M. : *La tolérance au risque de l’histoire, de Voltaire à nos jours*, Aléas, 1995.

Crugten-André, V. (van) :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de Voltaire*, Champion, 1999.

Ghislain Waterlot : *Voltaire, Le procureur des Lumières*, Editions Michalon, 1996.

Orieux J. :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2 Volumes, Flammarion, 1977.

Pomeau R. : *Voltaire*, Seuil, 1975.

Pomeau R. : *Voltaire en son temps*, 2 Volumes, Fayard, 1995.

Raison présente, N° 112, Nouvelles Editions Rationalistes, 1994.

ABSTRACT

La Raison et L'esprit de la Tolérance: Une Considération sur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de Voltaire

Lee Dong-Yul

En 1762, un négociant protestant nommé Jean Calas fut condamné à mort par le parlement de Toulouse et roué vif. Il avait été accusé, sans aucune preuve, d'avoir assassiné son propre fils afin de l'empêcher d'abjurer le protestantisme. C'était une accusation lancée par la foule fanatique. La mort de Jean Calas est, selon Voltaire, le meurtre commis avec le glaive de la justice. D'emblée cette mort prend, aux yeux de Voltaire, une dimension universelle. Il ne s'agit pas seulement du désastre privé d'une famille ; cette injustice concerne l'humanité dans la mesure où elle manifeste, par un exemple éclatant, la folie destructrice à laquelle le fanatisme expose chacun des hommes.

Le patriarche de Ferney, âgé de 68 ans, décide de prendre en main le procès Calas. Par lui seul, ce procès ordinaire d'une province va devenir l'affaire Calas qui bouleverse l'opinion de l'Europe entière et qui marque le siècle des Lumières. Le combat énergique et obstiné de Voltaire dure trois ans jusqu'à ce qu'il acquière le succès.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l'un des chefs-d'oeuvre de Voltaire, est composé et publié durant la campagne en faveur des Calas. Conçu d'abord pour intervenir dans une affaire judiciaire en cours, texte de circonstance,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est aussi la prédication d'une valeur universelle : la tolérance. Comme un couteau à deux tranchants, cet ouvrage comprend le contingent et l'universel.

La démarche d'historien se présente celle qui caractérise la narration du *Traité sur la tolérance*. Pour condamner le préjugé religieux et relativiser la valeur du temps, l'ouvrage propose un vaste panorama remontant à l'Antiquité, qu'elle soit judaïque, grecque ou romaine, et étend l'enquête du côté de l'Orient, de la Chine et du Japon. La prétention de l'une des innombrables religions à être la seule vraie et à ne pas tolérer les autres est bien entendu dans un tel contexte difficile à défendre. L'enquête historique montre que le modèle de la tolérance est partout et dans tous les temps. Toute religion, qui argue de sa suprématie pour faire de l'intolérance un principe, est isolée dans l'histoire du genre humain.

La tolérance universelle que préconise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est une vertu, à la fois religieuse, politique et sociale : elle apporte prospérité et paix ; <apanage de la nature>, elle est humanité, indulgence, commisération, fraternité. C'est une valeur des Lumières, universelle et utopique. Comment cette valeur se réalisera-t-elle? Grand penseur qui représente le siècle des Lumières, Voltaire considère la tolérance comme le produit des progrès de la raison ; la raison est l'unique moyen par lequel on arrive à cette valeur universelle qu'est la tolérance. Aux yeux de nos contemporains, la foi de Voltaire en la raison n'est peut-être pas exempte d'ingénuité. Ce n'en est pas moins cette foi qui a libéré le monde du fanatisme féroce et qui nous permet toujours de rêver un monde meilleur. La plus belle part de Voltaire se trouverait sans doute dans le *Traité sur la tolérance*. Loin d'être désuète et éloignée de nos préoccupations, cette oeuvre du dix-huitième siècle parle encore à notre temps et interpelle nos consciences.